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 혁신생태계에서 새로운 정치질서 모색
발제자 : 박수영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일 시 : 2017년 09월 14일(목) 오전 07시 30분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한선 후원문자 #7079-4545

제264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약 >

- 한국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각광받게 된 계기는 이세돌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 대결이다.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1승 4패로 패배한 사건은 인간이 알파고를 이기는 마지막 사례로 남겨질 것이다. 현재 영국에서 알파고 끼리(알파고와 알파고) 바둑대결을 두고 있다. 알파고는 한 수를 두는 데 5초, 한 판을 두는 데 25분이 소요되며 바둑기사들이 알파고의 고난이도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인공지능 외 로봇기술, 사물인터넷(IoT), 3D 인터넷과 무인자동차 등이 균형을 이루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산되고 7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될 전망이다. 비즈니스 영역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유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로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톰 굿윈(Tom Goodwin)은 저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기업인 우버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없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디어인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기업인 알리바바는 자체 물품목록이 없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체인 에어비엔비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한국은 정치를 교체하고 정부를 혁신하고 빅소사이어티(Big Society)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선 정치교체는 양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는 정치를 중도실용

주의로 복원하고 정치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오늘날 정치는 포퓰리즘에 빠진 좌파원리주의와 보수를 참칭한 계파패권주의로 나뉘지고,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정통적 보수주의 가치를 보수(保守)하고 신장하여 제3의 길로 나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로 개인의 자유를, 시장경제로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철저한 국방·안보 정책으로 공동체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로 권력이나 세력이 제멋대로 부리는 행태를 처벌해야 한다.

■ 빅소사이어티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민간과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사회안전망을 보완해야 한다는 정치철학을 뜻한다. 2010년 영국 총선에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을 필두로 한 보수당이 내세웠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시민단체, 학교와 종교단체와 같은 사회구성원들이 정치와 정부에 적정수준으로 개입한다면 정부 만능주의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다. 한국 보수정당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청년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서 지난 9년의 실패를 인정하고 중도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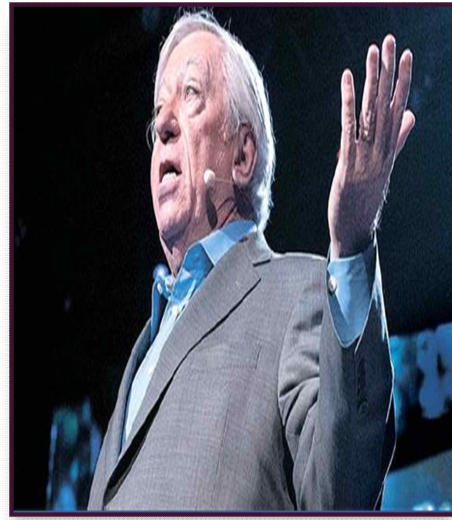
◆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변화

: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현실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 ◆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다보스 포럼에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등의 기술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초연결사회를 만들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될 것’을 알렸다. 하지만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고든(Robert J. Gordon)을 포함한 일부 학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기에 아직 이르다.”고 주장한다. 고든의 저서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에 의하면 범용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전반적인 사회 변혁이 나타나야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제2차 산업혁명 당시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이 일어나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발명으로 생활이 편리해졌다. 이어서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제3차 산업혁명으로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되고 글로벌 IT기업이 부상하면서 새로운 삶의 양상이 나타났다. 고든은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전기와 내연기관과 같은 범용기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표명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이 만개되는 과정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 제기와 특수한 현상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 ◆ 한국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각광받게 된 계기는 이세돌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대결이다.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1승 4패로 패배한 사건은 인간이 알파고를 이기는 마지막 사례로 남겨질 것이다. 현재 영국에서 알파고끼리(알파고와 알파고) 바둑대결을 두고 있다. 알파고는 한 수를 두는 데 5초, 한 판을 두는 데 25분이 소요되며 바둑기사



[그림 1] 제4차 산업혁명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클라우드 슈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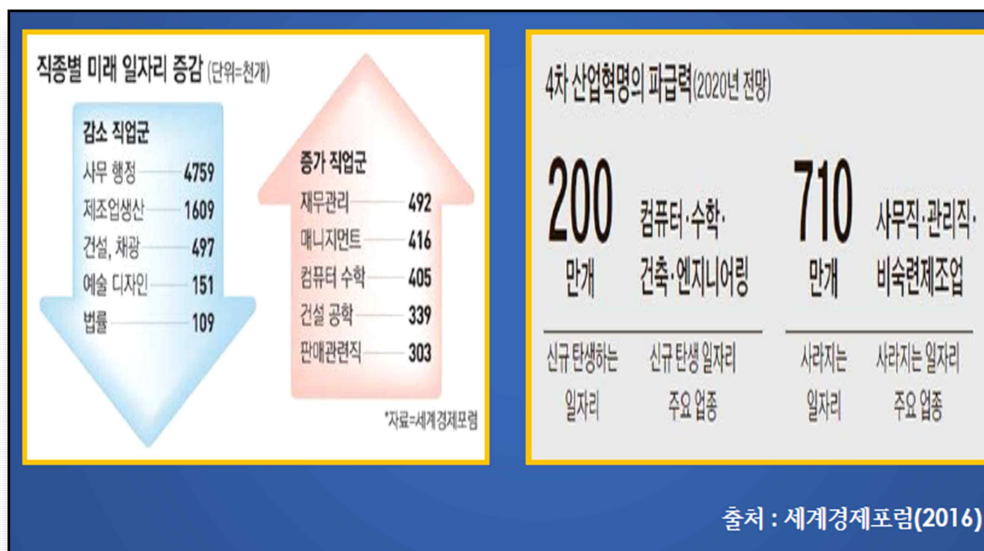
[그림 2] 인공지능 기술이 범용기술로 인정받기엔 이르지 못 했다고 주장하는 로버트 고든

들이 알파고의 고난이도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인공지능 외 로봇기술, 사물인터넷(IoT), 3D 인터넷과 무인자동차 등이 균형을 이루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산되고 7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된다. 비즈니스 영역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유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로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 된다. 톰 굿윈(Tom Goodwin)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기업인 우버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없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디어인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기업인 알리바바는 자체 물품목록이 없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체인 에어비엔비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케빈 켈리(Kevin Kelly)는 저서 『인에비터블-미래의 정체』를 통해 불가피한 기술의 힘 12가지를 서술하였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무언가로 되어가고(Becoming),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인지화하고(Cognifying), 고정된 것에서 유동적인 것으로 흐르고(Flowing), 현재는 읽지만 미래에는 화면을 보고(Screening), 소유하지 않고 접근하고(Accessing), 우리 모두의 것을 공유하고(Sharing), 나를 나답게 만들기 위해 걸러내고(Filtering), 섞일 수 없는 것들을 뒤섞고(Remixing), 사물과 상호작용하고(Interacting), 측정과 기록으로 흐름을 추적하고(Tracking), 가치를 만들어낼 무언가를 질문하고(Questioning),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Beginning) 법칙이 나타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림 3]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그림 4]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문제

◆ 한국 거버넌스 개혁

: 정치교체, 정부혁신과 빅소사이어티를 통한 중도실용주의 정책을 마련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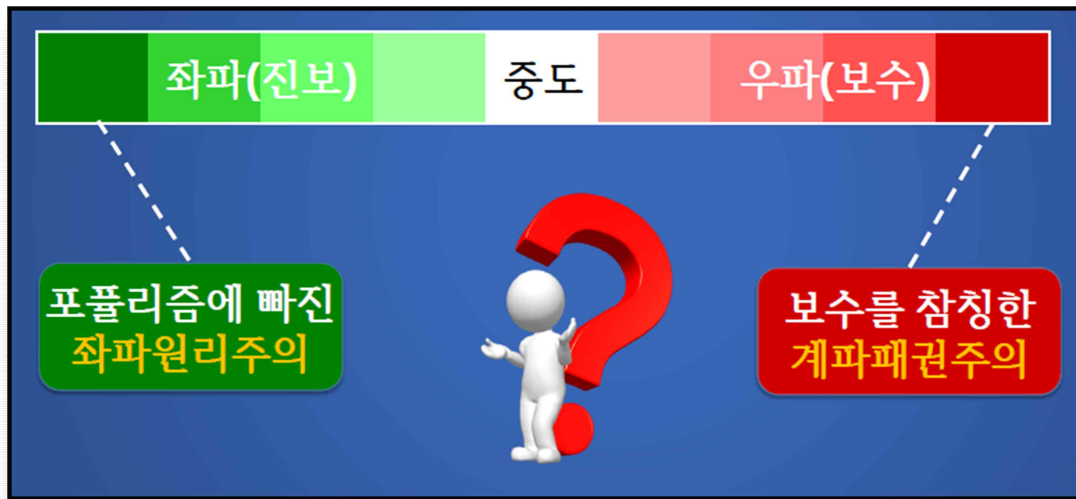
-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한국은 정치를 교체하고 정부를 혁신하고 빅소사이어티 (Big Society)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선 정치교체는 양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는 정치를



[그림 5] 플랫폼 경제의 활성화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이다.

중도실용주의로 복원하고 정치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오늘날 정치는 포퓰리즘에 빠진 좌파원리주의와 보수를 참칭한 계파패권주의로 나뉘지고,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정통적 보수주의 가치를 보수(保守)하고 신장하여 제3의 길로 나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로 개인의 자유를, 시장경제로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철저한 국방·안보 정책으로 공동체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로 권력이나 세력이 제멋대로 부리는 행태를 처벌해야 한다. 평등에 중점을 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정책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정부가 일자리를 공급하고 낙수효과마저 제어하고 있으며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부만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성적 민족주의로 사드배치가 지연되면서 자강이 흔들리고 있으며 법이 지배계층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법질서마저 무너졌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더 이상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중도세력으로 모여 정치를 교체해야 한다. 중도실용주의를 내세우고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크롱을 표본으로 삼을 수 있다. 스웨덴 前총리 타케 에를란데를 본받아 국회의원 생계형이 아닌 봉사형 정치를 이어나가고, 미국과 유럽 각 정치 모델의 장점을 차용하는 방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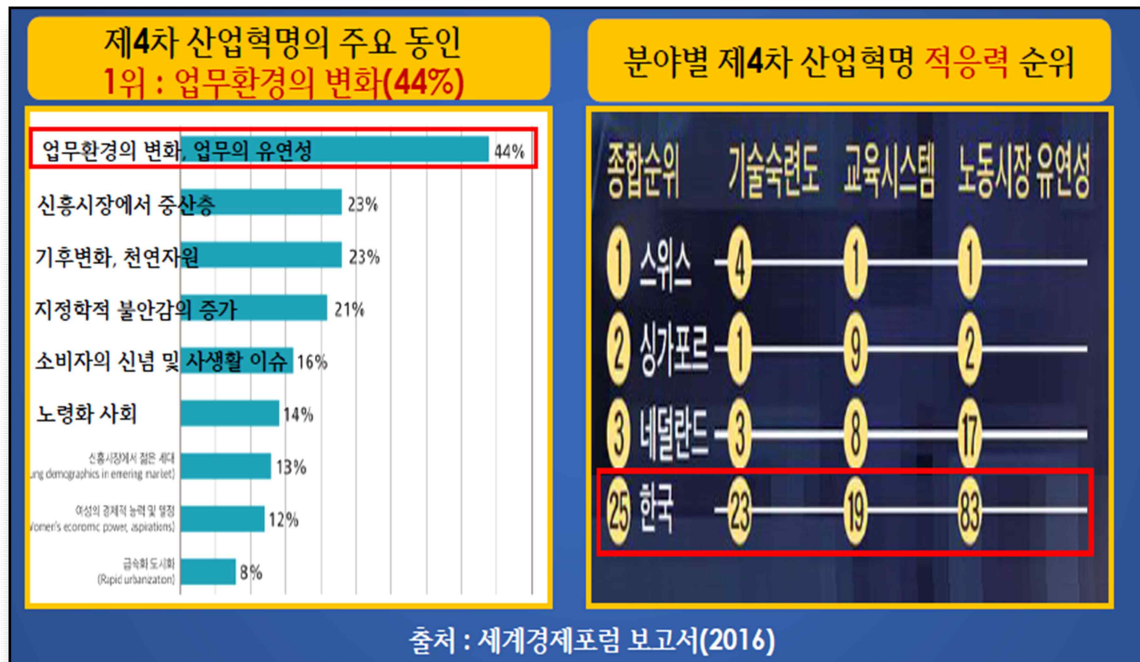
- ◆ 정부혁신을 위해 정부는 R&D, 교육과 재교육,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아이폰에 탑재된 인공지능 Siri는 미국 고등방위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서 개발한 기술이다. 이외 GPS는 미국 국방부에서 멀티 터치 스크롤링(Multi Touch Scrolling) 국립과학재단에서 개발한 기술이다. 이처럼 20~30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기술의 경우 국가기관에서 직접 연구하거나 사기업에 지원해주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의하면 제4차 산



[그림 6]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중도실용주의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

업혁명으로 인해 업무환경이 변화할 것이다.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 분야별 직업군 적응력 순위에서 25위를 차지했다. 기술숙련도는 23위, 교육시스템은 19위, 노동시장 유연성이 83위로 나타났다. 분야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에서는 암기식 교육방법과 경쟁심리 조성을 지양하고 창의력과 배려를 길러주기 위한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실업자 발생 시 재교육하여 재취업을 독려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필요하다. 재취업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교육기관을 신설하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물리적, 사회적, 가상세계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함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 빅소사이어티는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민간과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정치철학을 뜻한다. 2010년 영국 총선에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을 필두로 한 보수당이 내세웠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시민단체, 학교와 종교단체와 같은 사회구성원들이 정치와 정부에 적정수준으로 개입한다면 정부 만능주의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다. 한국 보수정당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청년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서 지난 9년의 실패를 인정하고 중도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노력이 최우선이다.



[그림 7]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기술발전과 일자리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제264회 정책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정치모델을 어떻게 차용해야 하는가?

답변 미국도 중도의 길을 가다 실패하였다. 미국 정치인들도 극단적으로 싸우는 경우가 태반이다. 미국의 정치가 유럽의 정치보다 취약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선례를 참고하고 한국이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의원 정원 감축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에 발동을 걸고, 노동 유연화, 기업규제 완화 등의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보수와 진보 정권의 연이은 실패 끝에 정통 보수주의 대통령 마크롱이 선출되었다. 한국도 그 노선에 놓여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연구하고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질문2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나타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민주화는 고수해야 하지 않은가?

답변 사적 혹은 시장영역에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정통적 보수주의가 도입할 수 없는 개념이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진보 진영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며 오히려 경제성장을 해칠 수 있다. 오히려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강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